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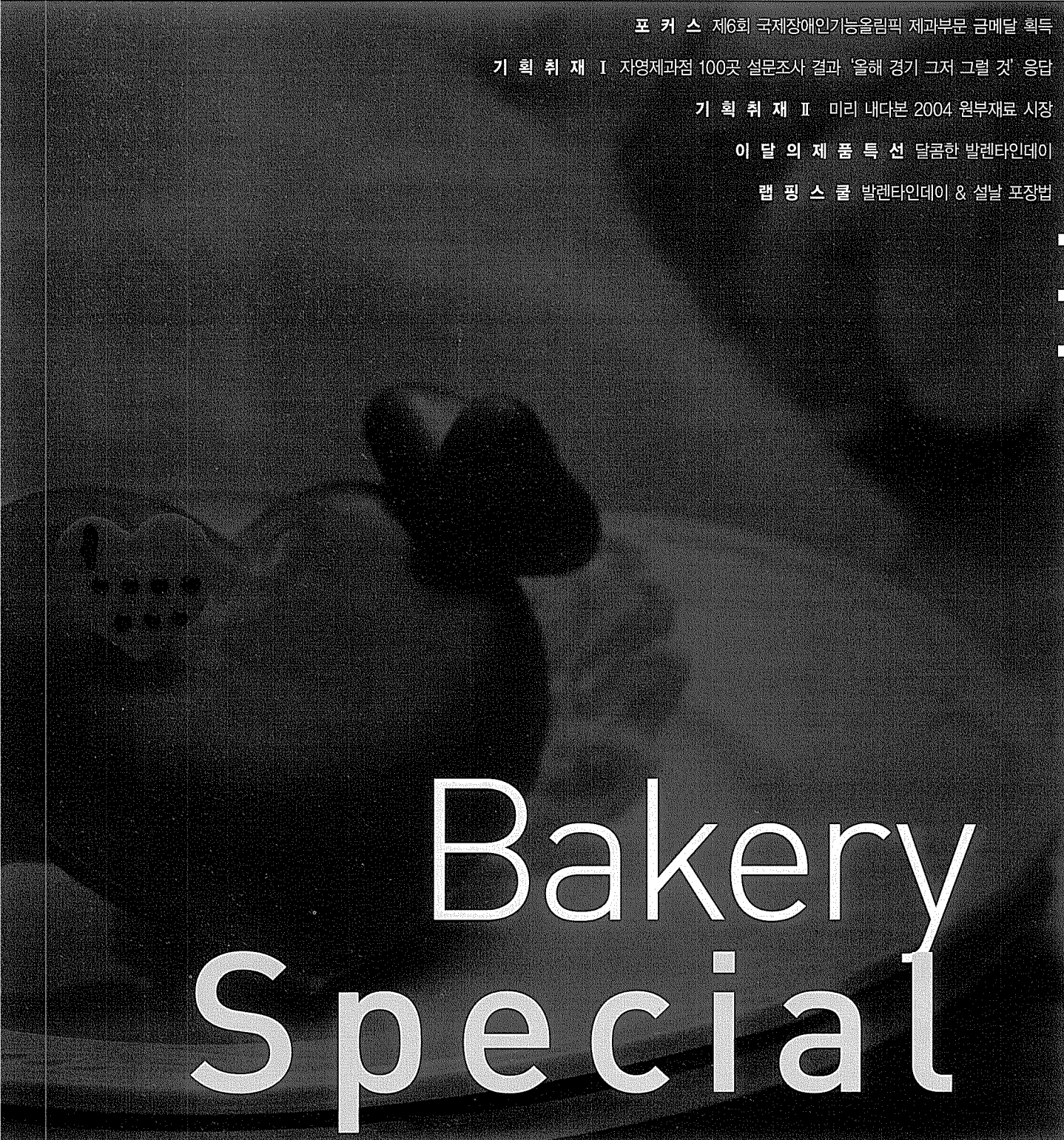
포커스 제6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제과부문 금메달 획득

기획취재 I 자영제과점 100곳 설문조사 결과 '올해 경기 그저 그럴 것'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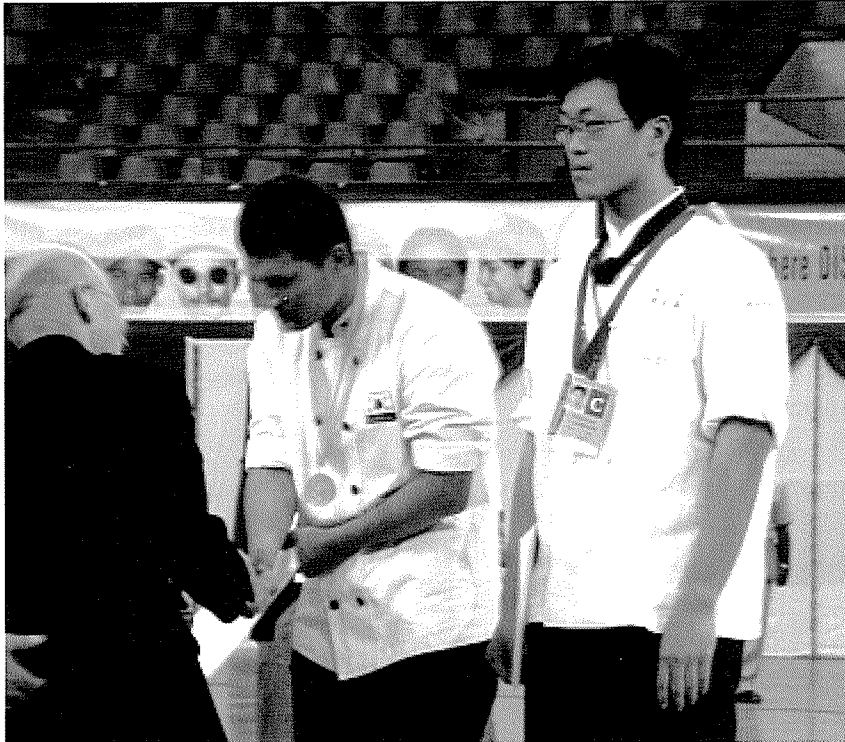
기획취재 II 미리 내다본 2004 원부재료 시장

이 달의 제품 특선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랩핑스쿨 발렌타인데이 & 설날 포장법



# Bakery Special



제과부문 대회가 끝나고 열린 시상식에서 장진근 씨가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사진 가운데).



다른 직종 선수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사진 맨 왼쪽).



종합 우승을 획득한 자랑스런 우리 선수단이 입국하는 날 공항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다.

장애를 딛고 당당히 얻어낸 값진 승리

# 제6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제과부문 금메달 획득

글 · 김영주 기자 | 사진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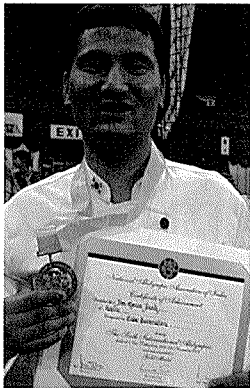
지난 11월 24일 인도에서 너무나 값진 승전보가 날아들었다. 제6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제과부문에 처녀 출전한 장진근 씨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 이번 금메달은 국제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획득한 것으로 제과업계의 새로운 타이틀을 추가하는 소중한 메달이었다.

이번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인도 뉴델리 인다라간다 경기장에서 32개 국 1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25개 전 직종에 30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금 13개, 은 5개, 동 2개를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우승으로 역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통산 4번의 우승과 4회, 5회 대회에 이어 3연패라는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

주최국이었던 인도에서 홈그라운드 의 잇점을 이용해 자국민 심사위원을 대거 기용하는 등 우승을 위한 노골적인 텃세를 부렸지만 자신의 실력을 모두 쏟아낸 우리 대표팀은 준우승국인 대만(금3개, 은3개, 동4개)과 현저한 격차를 벌이며 월등한 기량을 입증했다.

제과부문은 제5회 체코대회(2000년)때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데코레이션 케이크 직종에서 실력을 겨루고 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 각 지방대회와 국제대회 파견 선수 선발대회를 통해 선출된 장진근 씨가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제과부문에 출전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장진근 씨는 현지의 큰 일교차와 열악한 환경으로 감기와 설사에 시달리는 등 힘든 상황 속에서 혼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천금같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제과부문 대표 정진근 씨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제과부문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소감은 어떤지?

경기가 있기 하루 전날부터 몸이 안 좋아 많이 힘들었다. 먼지가 많은 현지 상황이 잘 안 맞았는지 아니면 음식 때문인지 고열이 나고 무척 아팠다. 공단 관계자들이 치료를 해주긴 했지만 몸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 경기 당일에도 많이 힘들었다. 약 기운으로 경기를 치루면서 어떻게든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3시간의 악몽 같던 경기가 끝나고 금메달을 받게 되어 무척 기뻐다.

경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어진 3시간 동안 버터크림이나 마지팬을 이용해 케이크를 장식하는 것이다. 버터크림을 이용해 '16세 소녀의 케이크'란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 인도 여성들이 16세가 되면 성인이 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작품을 구상했다.

버터케이크는 사용할 버터크림을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는데 손작업으로 전부 준비를 해야 한다. 경기에 주어진 시간이 총 3시간인데 버터크림을 만드는 것만으로 20분이 넘게 소요돼 사실상 정교한 작품을 만들기는 불가능했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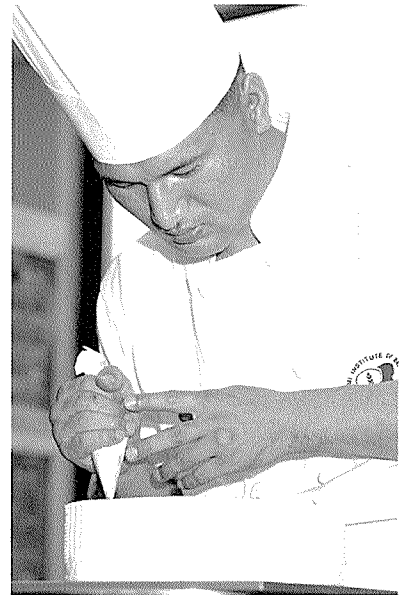
준비를 하는 동안 힘들 때도 많았고 방향도 많이 했다. 마지막 6개월 동안 혼자서 연습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았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아서 너무 기쁘다.

처음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못해 포기하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대회에 나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부산직업전문학교 김석진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회 준비를 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다. 이제는 조금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다.

앞으로도 제과기술을 열심히 공부하는 제과인이 되고 싶다. 이번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더욱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B**



### 플러스 정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은 UN이 정한 '국제장애인의 해'에 시작해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개최 현황 및 우리나라 대표팀 성적

제1회(1981년) 일본 동경 종합 2위

제2회(1985년) 콜롬비아 보고타 종합1위

제3회(1991년) 홍콩 사틴 종합3위

제4회(1995년) 호주 퍼스 종합1위

제5회(2000년) 체코 프라하 종합1위 / 제과직종 개실

제6회(2003년) 인도 뉴델리 종합1위 / 제과부문 금메달 획득